



SBS 뉴스 SBS 연예스포츠

속보 > '4회 우승' 독일, 세계정복하고 '전차군단' 시대...

검색

- SBS CNBC 홈
- 글로벌 뉴스센터
- 국내뉴스
- 투자전략
- 다시보기
- 라이브TV
- 속보

인기프로그램 '민생경제 시사각각' '백브리핑 시사각각' 차별화된 경제뉴스 'SBSCNBC 뉴스' 인문학 지식향연

무료종목진단

쌍 전문가방송

착한 의자

- VEV
- SOXV
- VSRUWV
- JROI
- FQEF
- lxqH
- PWY
- qJin

### 산업/기업 '너도나도 한국으로'...SPA브랜드 경쟁 심화



서울시, 전국 최초 미혼모 '공동 육아 방' 운영

대한상의 "빅데이터 육성 'SPEED' 필요"

네덜란드 브라질 꺾고 3위 "시상식장에서 선수를 보인 반응은..."

브라질 네덜란드에 완패, 경기 못 뛴 네이마르 한다는 말이...

#### 관련기사

'세계 최초' 자동감속 기술...국내용에 그치나

#### <앵커>

가격이 저렴하고 상품 교체 주기가 빠르다는 이유로 유니클로와 자라 같은 의류 브랜드들이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인기인데요.

이들은 제품의 기획에서 생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자체 소화하는 SPA 브랜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SPA 브랜드 시장 경쟁이 최근 후발주자들의 합류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난 5월에 서울 명동에 문을 연 캐나다 SPA브랜드 '조프레시'입니다.

캐나다 토종 브랜드인 이 업체는 아시아 진출 첫 매장으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이유는 SPA 브랜드의 격전지이자 유행에 민감한 국내 시장을 아시아 진출의 가능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니코앤드'도 오는 25일 서울 강남에 국내 첫 매장 문을 열 예정입니다.

다양한 해외 SPA 브랜드의 가세로 우리나라 SPA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세 또한 가파를 것 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유리 교수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인구수나 시장규모 등을 유럽이나 미국 등 패션 선진시장과 비교해 봤을 때도 SPA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년간은 SPA 시장이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2008년 5000억원 수준이었던 국내 SPA 시장은 지난해 3조원 규모로 5년 만에 6배로 확대됐습니다.



#### 실시간 속보

#### 전체보기

소비자 지갑 안 열리는데...이베이 실적 대한상의 "빅데이터 육성 'SPEED' 필요" 뚜껑 여는 금융주 실적...벌써부터 김 선 포르투갈 약재 진정...최대 리스크로 번 웰스파고, 2분기 실적 '양호' ...美 주력

#### 주요 시세

코스피	1,988.74	0.00
코스닥	556.58	0.00
선물	257.80	0.00
나스닥	↑4,415.49	▲19.29
다우존스	↑16,943.81	▲28.74

#### 핫포커스



[슈퍼리치] '혁신기업' 아마존의 두얼굴 내가 시킨 피자, 비행물체가 날라준다? "39억원 내놔" 황당 소송 휘말린 테슬라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1위 게임 '이것' 나홀로 웃은 美...주요국 경제지표 보니

#### ■ '시선집중' 뜨거운 연애가 뉴스



AOA 민아 경찰 수사 의뢰, 이렇게 수수한 사진을...'경악'

승아, 물에 젖은 핫팬츠 몸매...'후끈' 민폐하객 김성은, '우아와 섹시 사이'

#### ■ '시골 시골' 오늘의 핫이슈



우승후보 브라질, 자존심 마저 무너진 '삼바축구'

7:30재보선 '후보등록' 마강일...경쟁률은? 부산 수영장 사고, 학교측 해명 들어보니

#### ■ 알면 알수록 유용한 생활경제



'조끼에 목걸이에'... 교묘해진 금 밀수 '기승'

'20% 저렴' 닭 종량 판매 나선 이마트 자동차 연비 2017년부터 엄격히 '검증'

특히 2008년 1000억원 수준이었던 유니클로와 자라, H&M은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때문에 후발 업체들도 높은 성장세를 기대하는 상태지만,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진출해 있던 기존 SPA 강자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 유니클로와 H&M은 각각 세컨드 브랜드 '지유'와 '코스'의 국내 출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대 50%를 넘나드는 할인행사를 확대해, 후발주자의 진입기회 자체를 막겠다는 전략까지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유리 교수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 (세일경쟁시) 후발주자들은 아무래도 인지도도 낮고, 경쟁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격경쟁에 타격을 입고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실제로 업계 선두인 유니클로는 울어들 매달 세일을 진행하며, SPA브랜드 전체의 가격 인하를 이끌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 진입한 조프레시 등은 유니클로의 파격적인 할인행사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선발 주자를 추격하는 입장에서 신규 사업자들이 할인폭을 더 키우면 키웠지 낮추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국내 SPA 시장의 성장세가 예측되는 가운데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국내에 진출한 후발 해외SPA 브랜드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CNBC 이한승입니다.

최종편집 : 2014-07-07 19:46

SBS CNBC 인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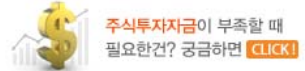
실제 커플로 의심되는 톰배우 '19금 베드신' 세상에 前 남편 아들 데리고 남친과 야구장 데이트 '딱 걸려' 청순 女배우, 알고보니 40대男과 사실혼 관계 '충격' 이덕화, 박봄 얼굴 보자마자 하는 말이...'당황스럽네' 방송중단한 이수근 "닭갈비집에서 일한다" 충격 근황



이한 이한승 MAIL 이전 방송 / 기사 스타벅스, 오후시간 일부 조명 소등..."에너지 절약 동참"

SBSCNBC 프리미엄 투자전략

'추가상승 기대' 이월드, 저점매수 이렇게 우성사료, 원재료 가격 하락에 '들쭉들쭉' 잘나가는 BGF리테일, 향후 전망은? '20% 급등' 에이블씨엔씨, 팔까 말까



'킨닝'에서 쟁한 종목, 상승 모멘텀은 사회초년생을 위한 '재우설계' 이렇게 잘 나가는 아프리카TV, 수익률이 무려... 하반기 '수익률 대박' 킨닝과 함께라면 '부자아빠 비밀노트'에 테크노 답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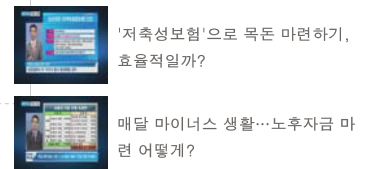
증권/증시 랭킹 전체랭킹

[힐링머니] 틈새 업종 내 주도주 속속 [관심주] 우성사료, 원재료 가격 하락에 삼성전자 '어닝쇼크' 타격 피했지만... [관심주] 추가상승 기대하며...이월드, 저 [주식상당] '20% 급등' 에이블씨엔씨, [관심주] 지엔씨에너지, 한번 주도주는 영 코스피, 2000선 언저리 '멤멤'...SK하이닉 [주식상당] 인터플렉스, 나노신소재, 제우 [힐링머니] 가는 말에 올라 타자...우상향 [관심주] '오르락 내리락' 이월드 공략,

EDGEBOOK 옛지북▶



추천기사 X



저작권자 SBS 비즈니스 네트워크 & SBS 콘텐츠허브 무단복제 재배포금지 인쇄하기 목록 위로

이인혜, 200억 영어시장 싹쓸이! 학원가 '초비상 사태' 자세히보기▶ 영어단어에 관한 이미지를 접목시킨 일명 "이인혜 뇌세김영어"로 불리는 워드스케치의 누적사용자가 150만명을 돌파했다. 학생들이 3주만에 한 학기 분량의 단어를 전부 암기해 화제가 된 워드스케치는 서울의 중,고등학생들 19,7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균 44%의 성적상승 효과를 나타냈다. 특히 여배우 이인혜씨가...

소셜로그인 [ ] [ ] [ ] 글로벌 프리미엄 경제채널! sbs cnbc 뉴스

SNS 또는 SBS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0/250

입력

Powered by LiveRe

삶은 통계	루머와 진실	CNBC EUROPE
[삶은 통계] '14개월째 내리막' 월세가격 뜯어보니	[루머와진실] 동국제강 회장, 日 JFE스틸 방문 속내 는?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25%로 인하 <CNBC>
[삶은 통계] 세월호 여파...국내 경제, 얼마나 가라앉았 나	[루머와진실] 대우조선, 야말프로젝트 독식 이유있네	유럽증시, 미국 연방정부 '셋다운' 우려에 하락
[삶은 통계] 소득 늘었지만...지갑은 '꼭' 닫았다	[루머와진실] 박병엽 전 팬택 부회장, 회사 인수설 '뒷말 무성'	유럽증시, 美 부채한도 불확실성으로 약보합세
[삶은 통계] '초흔' 늦어지고 '황혼 이혼' 는다	[루머와진실] 웃음기 사라진 동국제강	유럽증시 관망하며 혼조세

채널안내	ABOUT SBS CNBC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고객센터	사이트 맵	Global Partner with  CNBC	
<p>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82 SBS프리즘타워 15, 16층 (주)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대표이사 홍성철, 이상규 찾아오시는길          SBS콘텐츠허브 고객센터(홈페이지 관련 문의) 02-2001-6600 SBS CNBC 방송사 02-6938-1000  E-mail          사업자 번호 116-81-76255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양천 제41호 부가통신사업 신고번호 2566호</p>						SBS Family	지역민영방송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82 SBS프리즘타워 10층 에스비에스 비즈니스네트워크 대표이사 유환식 찾아오시는길  
 고객센터 SBS콘텐츠허브 02-2001-6600 SBS CNBC 방송사 02-6938-1000 E-mail

SBS CNBC에서 제공하는 증권, 투자정보 및 데이터는 투자 참고 사항이며 서비스의 오류 또는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SBS CNBC는 그 결과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SBSCONTENTSHUB & SBSBUSINESSNETWORK. ALL RIGHTS RESERVED.